

부산 국가지질공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 선정

낙동강 하구·이기대 등 20곳 … 세계지질과학총회 2024년 8월 부산 개최



낙동강 하구, 금정산, 태종대, 오륙도, 이기대 등 부산 국가지질공원 20곳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신청을 위한 국내 후보지로 선정됐다(사진은 이기대 공원).
사진제공·부산일보

'부산 국가지질공원' 20곳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신청을 위한 국내 후보지로 선정됐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지질학적으로 세계적인 가치를 지닌 명소와 경관을 보호, 교육,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관리하는 곳이다. 우리나라에는 제주도, 청송, 무등산, 한탄강 등 4곳이 있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부산의 지질명소는 낙동강 하구, 금정산, 태종대, 오륙도, 이기대 등 20곳이다. 부산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통해 2024년 개최하는 '세계지질과학총회' 성공 개최의 기틀을 마련하고 세계적 관광자원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세계지질과학총회는 국제지질과학연맹

(IUGS) 주최로 1878년, 첫 총회가 개최된 이래 4년마다 열리고 있다. 120여 개 국가에서 지질학 전문가, 정부 인사, NGO 관계자 등 6천여 명이 참가하는 국제행사다. '2024년 세계지질과학총회(IGC) 부산'은 2024년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올해 9월까지 신청서를 제출, 2022년 7월 유네스코 검증위원 현장 실사 후 2023년 4월 정식 인증될 전망이다. 부산은 도시 전역에 강과 산, 바다를 아우르는 지질명소가 분포해 지질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부산 지역사회는 2024년 8월 세계지질과학총회의 성공 개최와 부산의 지질공원을 세계적 관광자원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잡는다!

강화된 저감 대책 추진… 드론 활용·배출원 감시 등

부산이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 나섰다. 드론 활용·배출원 감시·민간 감시단 운영·실내 공기질 점검·예보 권역 세분화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한 계절관리제를 오는 3월 31일까지 펼친다.

부산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인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제2차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관리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3년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부산지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8마이크로그램 ($\mu\text{g}/\text{m}^3$). 연평균 농도인 $23\mu\text{g}/\text{m}^3$ 보다 22% 가량 높은 수치이다. 대기 정체와 적은 강수량, 강한 북서풍 등 불리한 기상 여건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이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조치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낮춰 시민건강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2019년 11월 처음 도입됐다. 제1차 계절관리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년 동기간 대비 25% 감소($28 \rightarrow 21\mu\text{g}/\text{m}^3$)한 수치를 보였다. 또 '고농도' 일수가 10일에

서 1일로, '나쁨' 일수가 24일에서 11일로 감소했다. 특히 '좋음' 일수는 17일에서 45일로 대폭 늘어나는 등 개선 효과를 보였다.

부산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에도 나선다. 공단지역 내 불법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을 위해 드론을 활용해 시료를 모으고, 대기질 정밀 측정차량을 통해 실시간 오염도를 측정한다. 25명의 민간감시단을 운영해 대기 배출사업장과 공사장 등 불법 배출,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미세먼지 집중 관리도로 운영도 강화한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점 관리도로 27개 노선, 총연장 105km에 도로 청소차 104대(시 54대, 구·군 50대)를 동원해 1일 2~4회 이상 청소를 확대한다.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점검도 추진한다. 운행 중인 노후 경유차를 중심으로 측정기기(비디오) 단속을 실시하고 주차장·차고지 공회전 단속도 강화한다. 시민건강 보호

수영강변대로~삼어로 연결 수영강 횡단도로 개통

총연장 376m 왕복 2~3차로

지난해 12월 31일 0시부터

수영강변대로와 삼어로를 연결하는 수영강 횡단도로가 지난해 12월 31일 개통했다. 수영강 횡단도로는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반여 1동)와 삼어로(반여 4동)를 연결하는 총연장 376m(교량 228m)의 왕복 2~3차 도로이다. 2014년 건설방안 검토를 시작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타당성 평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시행, 2018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했다.

이번 개통으로 그동안 우천 때마다 수영강 횡단 세월교의 침수로 차량통행이 제한됐던 반여동, 안락동, 금사동 일원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지역 간 연결도로망 구축으로 교통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수영강 횡단도로.

조치에도 나선다. 미세먼지 민감·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과 경로당, 유치원 등 5천306곳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한다. 도시철도 지하 역사와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점검을 강화해 공기질 개선에도 노력한다.

이 외에도 저소득층과 미세먼지 취약계층 약 24만 명에게 보건용(KF80) 마스크를 배부한다. 대기질 예보도 권역별로 세분화해 실시한다. 부산은 지난해 11월 16일부터 계절관리제에 대비, 초미세먼지 예보 권역을 기존 6곳에서 19곳으로 세분화해 주간예보를 시행하고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자동차 운행을 제한한다. 운행 제한 시간은 오전 6시~오후 9시.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 다만 5등급 차량이라도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면 운행 할 수 있다. 조기 폐차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앞으로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통해 시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비상 저감조치로 인해 다소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모두의 건강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김향희_kicihappy10@korea.kr